

## 예리한 통찰력의 작가 이강백

이강백, 『이강백 희곡전집 8』(평민사, 2015)

성유경\*

### <국문 초록>

한국 극작가를 대표하는 이강백의 여덟 번째 희곡전집이 출간되었다. 『이강백 희곡전집8』에는 작가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쓰고 공연한 <맨드라미꽃>, <황색어관>, <죽기살기>, <쟁>, <즐거운 복회>, <날아다니는 돌> 총 여섯 편이 실려 있다. 이강백은 평단과 관객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작가이고, 작품 감상 후에는 인간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느끼게 해준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작가는 부정의와 악업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도 이상과 구원에 몰두하는 삶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강백 희곡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늘 독특한 상상력과 실험정신으로 희곡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는 우리 시대의 소중한 작가임이 분명하다.

## 1. 이상과 구원에 몰두하는 삶

### 1.1. <날아다니는 돌>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면서 누군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간의 운명을 점쳤다. 도덕률을 논한 자도 있었고, 연애 소설의 모티프로 삼은 자도 있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돌>의 주인공 이기두는 “밤하늘의 가득한 별들이 날아다니는” 무대에서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이 허공 위로 떠올라 날아다니고 있다.”고 외친다.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영상을 배경으로 삼는 <날아다니는 돌>에서 이강백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작가는 1991년 작 <물거품>에서도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그것을 고스란히 드리우는 연못을 묘사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반짝이며, 연못에서도 반짝”이라고 표현했다. 1996년 작 <뼈와 살>에선 “밝은 달과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과 수면에 가득 차있는” 월출리 마을로 길을 내주는 호수를 보여준다. 별들은 밝은 곳에선 빛나지 않는다. 어두컴컴한 밤하늘과 어둠 속 수면 위에서 빛을 발산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에게 감동과 성찰을 준다. 인간의 정신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을 선사한다. 이것은 세속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도(求道)와 수련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이며 행복을 안겨주는 삶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안정적이며 고난이 적은 삶이 부러울 때가 있고, 슬한 고통과 고독을 이겨내면서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삶이 대단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 전자의 삶을 사는 이들은 세속적이며,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머리를 잘 쓴다. 때론 누군가를 이용할 줄도 알고, 뻔뻔한 행동과 허언도 일삼는다. 하지만 사회 환경에 적응하려는 공식적인 얼굴이자 가면인 페르소나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눈치 덕에 사회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는다.

이상과 구원에 몰두하는 후자의 삶은 세속적 가치와 잘 타협하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에 튀는 존재이고, 잘난 척 한다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현실에서 비난받기 쉽다. 후자의 삶은 주로 예술과 철학, 종교, 사회운동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잘 드러난다. 대신 인간을 상품화·표준화·도구화·물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행보는 어떤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다. 처음엔 전자의 삶을 살다가 후자의 삶으로 옮길 수 있고, 후자의 삶에서 한계를 느껴 전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삶의 위기는 꼭 오기

\* 이화여자대학교

마련이기에, 어쩌면 누구나 자신은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느낄지 모른다. <날아다니는 돌>은 관객과 독자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안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버거운 삶속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반추하게 만드는 글이다.

<날아다니는 돌>의 주인공은 경매로 재산을 취득하는 이기두라는 젊은이다. 그는 법원에서 차압한 물건들을 공개 매각할 때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취한다. 그의 신조는 “경매는 타이밍”이며 “경매는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에 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경쟁에 강하고, 빚을 못 갚아 집을 차압당한 거주자가 버티는 일이 생기면 집 달리를 시켜 쫓아낸다.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런 이유로 그에게 문서는 곧 돈이고, 돈을 부풀릴 건수가 생기면 과감히 행동한다. 현재는 좁고 기다란 골목길에 위치한 원룸 하우스에 사는 청년이지만, 애인인 김혜란의 눈에 핑크빛 결혼생활을 충족시켜 줄 능력자로 보인다. 이기두의 통장엔 일억 오천이 들어 있고, 그의 투지로 미루어 볼 때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런 그의 삶에 변화가 온다.

이기두에게는 국립 도서관장을 지내다 은퇴한, 현재는 죽음을 앞둔 숙부가 있다. 숙부와 그는 끈끈한 관계로, 숙부는 죽기 전 조카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숙부는 ‘날아다니는 돌’이라는 현묘한 돌을 찾으라고 요구한다.

**숙부** 나는 너를 가장 좋아한다. 그 돌을 포기하지 마라. 그 돌을 가져야 넌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살 것이다!

작품의 제목이자 작품을 성장담과 모험담으로 이끄는 ‘날아다니는 돌’을 얻게 되는 과정은 삶의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는 각성의 창조적 성향으로 연결된다. 예전의 이기두는 세상과 잘 타협하며 살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계산에 밝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상과 구원에는 관심

이 멀기에, 그의 삶은 안정적인 코스가 예약되어 있었다. 비유하자면 평탄한 직선도로를 주행하는 삶 말이다. ‘날아다니는 돌’의 소유자인 박석 선생의 집을 여러 번 오가는 길이 비포장도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가파른 산길로 진행되듯이, 이기두가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그는 고통과 고독을 경험해야 했다. 희곡에서 작가가 설정한 이기두의 원초적 본능이자 부정적 측면인 그림자는 이웃 남자였고, 보기에 좋고 그럴싸한 외피에 몰두하는 삶의 지향은 김혜란이었다. 그 돌이 이기두를 떠나게 되면서 얻은 것은 본래의 자기라는 원형이다. 본래적 자기란 현자의 돌(Philosopher's stone)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전체성, 순수함의 총체를 품고 있어서 항상 살아있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과 통한다. 그리하여 이기두는 고통·불안·절망이란 급류에 휩쓸릴지라도 속박에서 벗어나 조용한 내적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날아다니는 돌’의 가치는 지성과 감성을 모두 갖춘 자만이 알 수 있고, 판에 박힌 틀을 깨는 상상력에서 부화한다. 희곡의 재미를 짜릿하게 맛볼 수 있는 부분은 돌의 용례와 사연에 관한 이야기다. 박석 선생은 과거 날아다니는 돌을 소유했던 이들의 기록을 이기두에게 전한다. 김시습은 돌을 갖는 순간 관습의 틀을 벗어나 상상의 날개를 달고 『금오신화』를 쓸 수 있었고, 허균은 처형 직전 전광석화처럼 운행하는 돌을 보고 분개한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한다. 돌에 담긴 사연과 기행을 사실의 문제로 따지지 말고 상상을 발휘할 때, 희극(喜劇)으로 쓰인 이 희곡의 참뜻을 수용하게 된다고 작가는 전한다.

## 1.2. <챙!>

<챙!>은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챙!>은 오케스트라 심벌즈 연주자인 함석진의 죽음을 계기로 측근들이 모여 함석진과 관련된 추억을 재구성하는 극이다.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작품의 핵심인물인 함석진은 오

케스트라의 심벌즈 연주자다. 심벌즈는 오케스트라에서 주된 악기가 아니다. 모든 연주곡에 참여하는 악기도 아니고, 곡에서 딱 한 번만 연주되기도 한다. 듣기에 부드럽고 달콤한 소리가 아닌지라 연습 중엔 늘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시끄럽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심벌즈 연주자는 오케스트라의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함석진은 인생에서 여러 시련을 경험한다. 그의 악기처럼 그의 인생도 순탄치 않다.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망막 색소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려 시력을 잃어 간다. 그리고 실명상태가 되기 전 더 많은 곳을 보고자 경비행기를 타고 산천초목을 둘러보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실종된다. 수색대와 구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

<챙!>은 함석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자리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관객으로 참여하고, 지휘자 박한중과 부인 이자림이 존재하지 않는 그를 생생히 불러내는 게 주내용이다. 그는 없지만 있다. “침묵이 없다면 소리도 없고, 소리가 없다면 침묵도 없다”는 대사는 음악으로 향했던 물음의 화살을 인간과 인생의 사유로 향하게 한다.

**이자림** “실망이에요, 실망! 동네 개들에게 물릴 뻔하고, 약수터 어르신들께 야단맞고, 공사장 인부들에게 쫓겨나고, 그렇게 연습해서 딱 한 번 처요!”

**박한중**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딱 한번 치는 것이 전체 연주의 클라이맥스죠.”

**이자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연주하는 동안, 고독하게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박한중** “기다리는 겁니다. 절정의 순간을요.”

**이자림** “안 기다려도 그 순간은 와요!”

**박한중**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박자를 세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만큼 박자를 놓치기 쉽고, 박자를

놓치면 처야할 절정의 그 순간을 놓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녹록하지 않다. 누구나 조명 받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부귀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지닌 것도 아니고, 행운의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눈보라가 휘날리고 몹시 추운 겨울날과 같다 해서 방안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하고, 시선을 외부에 두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내면으로 향해 단단해져야 한다. 위 대사는 젊은 시절 불안한 재수생 신분의 이자림과 음악대학 졸업생 함석진이 나누는 대화를 박한중과 이자림이 재연한 것이다. 대단한 대사라고 생각된다. 인생을 심벌즈로 비유한 희곡에서 “인생이란 오케스트라의 심벌즈 연주 같다. 박자를 세면서 기다려라, 반드시 ‘챙!’ 하고 울릴 순간이 온다……”는 노작가의 전언은 울림이 크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광대무변과 고요함이 우주적인 음향으로 울려 퍼지는 <날아다니는 돌>처럼 이 희곡에서 심벌즈의 ‘챙’ 소리는 침묵이 만든 소리다.

### 1.3. <맨드라미꽃>

<맨드라미꽃>은 혈연의 문제로 인한 비극적 사랑과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고귀한 자를 향한 연민이라는 점에서 다소 고전적인 분위기도 풍기는 극이다. 정민은 부잣집 출신에 곱게 자란 남자다. 장차 집안의 대를 잇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를 만난 날, 그녀가 아버지의 옛 정부(情婦)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결혼 승낙을 거절당하 그는 충격에 휩싸인 채 집을 나와 초라한 하숙집에서 끼니를 거르며 침묵의 시위를 한다. 그의 동생 영민은 메신저 역할을 하며 아버지와 집에서 감시당하는 연인의 동태를 보고한다. 영민은 그와 성격과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 근친이 아니라 해도 아버지의 체면 유지에 흠집을 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고, 정식 혼인이 아닌 은밀한 관계만을 허락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높이 산다. 인정받는 사랑을 원하는 정민은 신념을 꺾지 않는다. 그리고 정민을 지켜보다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하숙집 손녀 주혜는 홀로 가슴 아파한다. 지켜주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은 맨드라미꽃의 현현으로 그려진다. 맨드라미꽃은 극에서 정민과 주혜의 눈에만 보인다.

정민은 이강백 희곡 세계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이다. 명예와 돈과 성공의 배경 안에 있는 인간이 사랑과 이상과 양심을 지키고자 자기희생을 최후로 삼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 충동인 자기보존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과정은 극을 한없이 슬프게 만든다. 작가가 “정민은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이며 “내가 여성이라면 이런 남성에게 매혹되겠다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듯이, 정민에게는 일반적인 여성이 공감할 매력이 있다. 집필 당시 여자를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영민과 여자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부족한 장팔 사이에서 정민이 부각되도록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 심리에 밝지 않으면 창조할 수 없는 캐릭터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정민이 자살하는 <맨드라미꽃>의 후반부는 부서지는 마음, 패연히 내리는 눈물, 짧게 타올랐다 꺼지는 불꽃, 이런 벅찬 감정에 잠기게 한다. 작가의 내공이 빛나는 글이다.

삶의 근원과 이유를 묻는 것이 불가능하며, 속악한 삶이 겹으로 주름진 이들에게 맨드라미꽃은 절지(絶地) 식물일 뿐이다. 작가는 정민이 사라진 후의 하숙집 풍경을 메마르게 담아낸다. 하숙집의 일상은 변함없다. 맨드라미꽃은 없어졌다. 홍수나 화재가 들이닥쳐도 잔해는 남는다지만, 정민이 남긴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두커니 서 있지만 말고, 끝 방이나 깨끗이 치워라! 오늘 새로 하숙할 사람 온다!”는 할머니의 호령에 주혜는 정민이 머물렀던 방에 들어간다. 주혜의 실존은 정민의 상실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극은 끝난다.

상실을 감내하는 실존에 관한 해법은 <맨드라미꽃> 공연 9년 뒤 <쟁!>에 기록된다. 없지만 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잠시 있었던 침묵의 시간 동안 이강백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한 것일까? <맨드라미꽃>과 <쟁!>은 합독을 요한다.

## 2. 부정의와 악업이 반복되는 세상

### 2.1. <죽기살기>

<죽기살기>의 육손은 <맨드라미꽃>의 정민처럼 자기보존이 아닌 자기희생에 목적을 두는 남자다. 다만 육손의 행위는 사적인 측면을 넘어선다. 주인공 육손은 과거 소와 돼지, 닭과 오리 등 가축들을 죽이는 도살장 인부였다. 그는 여섯 개의 손가락을 지닌 자신을 조롱했던 이유로 ‘오두’라는 동료의 죽이려 했다. 실제 살인은 일어났지만 육손이 죽인 사람은 ‘김두’라는 다른 동료였고, 육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축일 때마다 형량은 가벼워졌고, 무기징역은 17년으로 감형되어 출소를 명받게 된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육손은 도살장이 있던 마을로 향한다. 여기까지 보면 <죽기살기>는 복수극의 서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작가는 그런 관례적인 해석을 거부한다. 육손은 죄 없는 가축들을 잘못 죽였듯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죽인 자신의 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마을에 들어왔고, 살해된 동료의 가족들 앞에서 죽겠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통해 죽음을 갚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육손의 희망은 좌절된다. 유가족 중 형제는 죽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구타하고 괴롭힌 의붓아버지여서 그가 죽기를 빌었는데, 소원을 이뤘다며 육손을 은인 취급한다. 그들의 모친은 육손에게 죽음 대신 보상금 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마지막 남은 유기족은 딸 선녀다. 선녀라면 육손의 죽음을 받아줄 것 같다. 하지만 선녀는 극에서 대담한 반전을 일으키는 인물로, 극의 결말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게 한다.

선녀는 그녀의 오빠들과는 의붓남매로, 죽은 김두의 친자식이다. 그런 이유에서 오빠들처럼 김두가 빨리 죽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았을 테고, 육손을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친은 남편이 죽자 생활고의 이유로 그녀를 유곽에 팔아 화대를 생계비로 받고, 포주와 결탁해 그녀를 감시한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원인 제공자인 육손에게 그간의 분노와 슬픔을 털기 충분하다. 하지만 선녀는 육손에게 이렇게 말한다.

**선녀** 저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사랑이 제 직업이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제 손님들이 많군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갖 남자들과 사랑을 한답니다. (...) 죽여, 죽여 줘, 그 말은 사랑해, 사랑해 줘, 그런 뜻이랍니다. (...) 가없어라! 얼마나 사랑 받고 싶었으면 이렇게 보채실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죽을 만큼 사랑해 드리겠어요!

<죽기살기>의 초고는 『한국연극』(2009년 5월호)에 게재되었는데, 원래 선녀의 대사는 위와 다르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갖 남자들과 사랑을 해요. 남자들은 강간하듯 내 몸을 즐기면서, 나도 즐겁나고 꼭 물어요. 난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내 몸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굴욕, 수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마비된 거죠. 사람들은 그런 나를 선녀라고 부릅니다. 난 당신이 부럽군요. 절망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니.....죽지 말아요. 오래오래 당신은 죽지 않고 사셔야죠”를 수정한 것이다. 선녀의 지적 수준을 낮춰 존재의 허무함을 자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작가가 언급한 대로 신(神)이 있다고 믿던 때에는 신이 속죄해 주었지

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가가 그것을 대리해주지만, 분명 한계와 모순이 있다. 유곽에 갇힌 여성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수 있으며, 죄의 문제를 대리할 수 있는가. 신을 요청할 수도 없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의 기계신도 개입할 수 없는 막힌 곳에서 이강백은 국가라는 존재 세계의 질서인 법의 한계와 법 이전 양심의 문제를 들춰낸다. 그것을 고찰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한 귀퉁이에서 꽃화분을 놓고 거리를 꾸미는 이곳의 위장은 색안경 뒤로 숨어버린 맹목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속죄가 없는 세계, 저주받은 세계에 대한 탐구는 <황색여관>과 궤를 같이한다.

## 2.2. <황색여관>

작가가 세대 간의 갈등을 꼬집기 위해 집필했다는 <황색여관>은 전작인 <칠산리>(1989)와 <영자와 진택>(1992)처럼 사회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신학적 알레고리로 읽히는 극이다. 지옥 같은 인간 사회에서 죄가 반복되어지는 지옥의 연대기를 형상화하면서, 사회적 갈등 극복과 보다 나은 사회 변화를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허벌판에 황사바람이 부는 ‘황색여관’은 하얀 눈이 내리는 <칠산리>나 복사꽃이 만발한 <영자와 진택>에 비해 훨씬 절망적인 곳이며, 지옥의 묵시록적 풍경을 보여준다. 여관은 비싼 방과 싼 방이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 ‘유산계급/윗세대’와 ‘무산계급/아랫세대’의 도식화라 할 수 있다. 비싼 방과 싼 방의 투숙객들은 밤에서 새벽까지 전쟁을 벌이며 서로를 심판하다 죽어간다. 생존율 0% 사망률 100%다. 늘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악이 악을 대물림한다. 여관주인 부부는 아침이 되면 시체를 뒤져 돈과 귀중품을 챙기고, 무덤 파는 남자들은 손수레에 시체를 싣고 나간다. 황색여관을 탈출하려는 처제와 주방장은 손님 중 단 한 명만 살리면 여관

을 당장 준다는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날 밤 은퇴공직자와 변호사, 사업가가 비싼 방의 손님으로 온다. 배선공, 배관공, 외판원, 대학생은 싼 방에 투숙한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모든 이를 유사한 상황, 즉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처지에 놓아야 정의의 원칙들을 합리적인 합의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투숙객의 두 그룹은 서로를 비교하여, 무시하고 잘난 체하거나, 질투하고 분노한다. 그들의 판단은 의심과 편견, 굴욕과 집착으로 왜곡된다. 시기심에 좌우되어 ‘너 죽고 나 죽자’ 사생활단의 각오로 싸운다. 살인과 자살의 충동이 오가는 이곳은 범죄소굴, 지옥, 무덤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희미한 희망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은 살육극을 막으려는 한 인간의 신념과 몸부림이다. 광풍의 현장에서 인간과 사회 회복을 염원하는 처제는 투숙객을 살리고자 노력하며, 여관을 떠나지 않는다. 비록 황사바람에 가린 “희뿌연한 햇빛”일지라도 빛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 2.3. <즐거운 복희>

<황색여관>, <죽기살기>, <즐거운 복희> 세 작품에는 물신주의와 자본주의의 현대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이 함의되어 있다. <즐거운 복희>는 탐욕에 눈이 먼 펜션업자들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복희’라는 젊은 여성을 이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극이다. 펜션업자들은 원래 복희의 아버지인 퇴역장군과 파트너의 관계에 있었지만, 장군이 죽자 고아가 된 복희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희의 이미지를 강요하고, 그것이 잘 팔리는 이야기가 되도록 창작의 추동력을 불사른다. 인생은 드라마이고, 짜인 각본과 역할대로 살아간다는 비의적인 명제는 <즐거운 복희>에서 구체적인 정황으로 드러난다.

장군은 유언장에 복희를 친 가족처럼 돌봐주고, 펜션 타운을 세상에서 가장 인락한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행복의 낙원과 구원의 완성이 약속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다. 펜션업자들은 장군의 엄청난 조문객들을 끌어들이며 펜션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갖은 꾀를 짜낸다. 그들은 장군을 현충원이 아닌 펜션 타운 근처에 묻고, 슬픈 표정과 검은 상복으로 아버지의 묘지를 참배하는 ‘슬픈 복희’의 드라마를 제작한다. 손님이 줄자 복희의 슬픔과 나팔수가 연주하는 음악의 즐거움을 콜라보레이션하는 등 장사치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복희의 대사와 행동은 병어리의 비명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복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 복희와 나팔수가 사랑에 빠져 이곳을 탈출하려들자 사업의 원천인 들의 시도를 막고, 이 과정에서 나팔수는 죽게 된다. 펜션업자들은 나팔수가 복희를 구하려다 호수에 빠져 죽은 것으로 왜곡의 드라마를 구상한다. 호수 속에서 나팔소리가 들린다는 신비현상으로 관광객들을 자극하고, 처절하게 아름다운 사랑의 비극을 책과 그림으로 팔아 이윤을 챙긴다.

이강백은 주체적인 삶을 갈망하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는 복희의 내면을 자이분열의 이인극으로 형상화하고, 결국 복희의 탈출에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펜션에 불을 지르고 사라진 복희를 후속 드라마를 위한 제물로 연출하는 펜션업자들의 뻔뻔함 또한 기록하고 있다. 장사치들과는 사교방식이 다른 조영옥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의 얼빠진 표정은 전작 <파수꾼> 주인공 소년의 그것과 겹친다. 제 2, 제 3의 복희는 영원히 대체될 것이다. 진실이 왜곡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의 비극은 외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특히 SNS로 추측과 왜곡을 전파하여 허구를 창출하는 현 시대는 <즐거운 복희>를 증명하는 좋은 예시가 된다.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는 인간을 만든다”는 ‘이야기의 원기’는 현재 시제로 일어난다.

### 3. 작가가 던지는 화두

지금까지 『이강백 희곡전집8』의 수록작들을 살펴보았다. 집필 시기로 정리하지 않은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극작계를 대표하는 이강백 작가의 힘은 그의 예리한 세상보기와 인간 탐구에 있다. 그는 집필 초기부터 곤욕을 당하고 학대받는 인간들의 삶이 그들의 양심이나 선행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귀고스의 반지’의 경우처럼 악행을 저질러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잘 사는 특권층은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삶은 손해를 보며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본인이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자세가 과연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의구심이 들거나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작가의 말대로 신(神)이 있다고 믿던 때에는 신이 속죄해 주었지만, 지금은 신의 존재가 불확실한 시대이다. 나아가 신이 비윤리적인 것을 명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신의 본성과 관련된 난감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이강백 희곡 세계에서 사회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신학적 알레고리는 두드러질 때가 많다.

<황색여관>은 죄가 반복되어지는 지옥의 연대기를 ‘황색여관’이라는 살육의 공간으로 형상화하면서, 사회적 갈등 극복과 보다 나은 사회 변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극이다. 가장 순박한 존재가 인간과 사회의 회복에 관한 신념을 보여준다는 작가 특유의 인물 설정이 눈에 띈다.

<죽기살기>는 유곽에 갇힌 여성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수 있으며, 죄의 문제를 대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극이다. 신을 요청할 수도 없고, 테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의 기계신도 개입할 수 없는 막힌 곳에서 이강백은 국가라는 존재 세계의 질서인 법의 한계와 법 이전 양심의 문제를 들춰낸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낳게 한 인간 욕망의 근원과 형태를 추적해온 작가답게 <황색여관>, <죽기살기>, <즐거운 복희> 세 작품에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현대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이 함의되어 있다. <즐거운 복희>의 펜션 타운은 장군의 유언대로 행복의 낙원과 구원의 완성이 약속되지 않는다. 탐욕에 눈이 먼 펜션업자들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복희’라는 젊은 여성을 이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즐거운 복희>에서 복희의 대사와 행동은 병어리의 비명처럼 들린다.

아무리 인과응보 사필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세속의 때에 물 들지 않는 인간들도 존재한다. 이상과 구원에 몰두하는 삶은 세속적 가치와 잘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손해도 잘 보고, 남들에 비해 추운 날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강백은 <맨드라미꽃>, <쟁!>, <날아다니는 돌>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성찰을 가시화한다.

<맨드라미꽃>의 정민은 이강백 희곡 세계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이다. 명예와 돈과 성공의 배경 안에 있는 인간이 사랑과 이상과 양심을 지키고자 자기희생을 최후로 삼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 충동인 자기보존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과정은 극을 한없이 슬프게 만든다. 삶의 근원과 이유를 묻는 것이 불가능하며, 속악한 삶이 겹으로 주름진 이들에게 맨드라미꽃은 절지(絶地) 식물일 뿐이다. 하지만 정민과 그를 사랑하는 주혜의 눈엔 붉게 타오르는 맨드라미꽃이 보인다. <맨드라미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쟁!>은 심벌즈 연주자인 함석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자리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관객으로 참여하고, 지휘자 박한중과 부인 이자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를 생생히 불러내는 게 주내용이다. 인생을 심벌즈로 비유한 희곡에서 “인생이란 오케스트라의 심벌즈 연주 같다. 박자를 세면서 기다려라, 반드시 ‘쟁!’ 하고 울릴 순간이 온다……”는 노작가의 전언은 울림이 크다. 세속적인 길을 걷지 않고 예술과 인생의 의미에 천착하는, 그래서 평탄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많은 힘을 주는 대사다.

<날아다니는 돌>은 희극이자 철학극이다. 작품을 성장담과 모험담으로 이끄는 ‘날아다니는 돌’을 얻게 되는 과정은 삶의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는 각성의 창조적 성향으로 연결된다. ‘날아다니는 돌’은 현자의 돌(Philosopher’s stone)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전체성, 순수함의 총체를 품고 있어서 항상 살아있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살면서 고통과 불안, 절망이란 급류에 휩쓸릴지라도 조용한 내적 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해주는 ‘날아다니는 돌’은 사소한 것에 담긴 인생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강백 작가의 여덟 번째 희곡전집 출간은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늘 독특한 상상력과 실험정신으로 희극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는 우리 시대의 소중한 작가다. 그를 통해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표면에 가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곤 했다. 사회의 저변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과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열린 감성은 관객과 독자의 기대감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다. 쓰고 또 써도 자꾸만 목이 탄다는 창작에의 갈증이 아홉 번째 희곡전집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